

Hernan Bas

The space between needful & needless

April 10 — May 31, 2025

Seoul

헤르난 바스

<필요와 불필요 사이의 공간>

2025년 4월 10일 - 5월 31일

리만머핀 서울



Hernan Bas, *The hummingbird enthusiast*, 2025 (detail)

Lehmann Maupin is pleased to present Hernan Bas's latest solo exhibition, *The space between needful & needless*, on view from April 10–May 31. Featuring twelve paintings, this new body of work marks the artist's first solo exhibition at the gallery's Seoul location following his solo Korean museum debut at Space K in 2021. *The space between needful & needless* opens on the heels of *The Conceptualists*, Bas's solo exhibition held at the Bass Museum of Art in his hometown of Miami, Florida.

One of the most celebrated figurative painters of our generation, Bas is known for his narrative works that weave together adolescent adventures and the paranormal with classical poetry, religious stories, mythology, and literature, presenting a contemporary version of History Painting. For Bas, each individual painting becomes an in-depth investigation into a singular critical subject, often providing a unique perspective on American subcultures. In his latest series, Bas draws inspiration from his recent travels throughout Florida and his obscure interests, turning to stories that have been on the creative back-burner for years. Departing from the world of *The Conceptualists*, which Bas developed over nearly two years, the exhibition reveals one of the artist's most personal bodies of work to date and his mastery of visual storytelling.

After finishing *The Conceptualists* in 2023, Bas became fascinated by everyday jobs, objects, and behaviors that teeter between necessity, uselessness, and absurdity. Taking his wry sense of humor to new depths, Bas embeds each new painting with satire and irony as a means of probing prevalent yet useless human behaviors. His focus on frivolity and excess mirrors the work of 19th century writers such as Oscar Wilde and Joris-Karl Huysmans, whose work has had a formative impact on Bas's practice over the years. As the first painting that he completed in this series, *A needless moment*

(2025) serves as a jumping off point for his exploration of "needless things." Inspired by photographs taken in the dense, mosquito-laden swamps of Northern Florida, Bas explores how an object, such as a mosquito-net hat, becomes futile in the face of the owner's choices, namely his decision to wander the swamp shirtless. The Florida landscape continues to be a source of inspiration, as seen in the work *The 6 toed cats' caretaker (Hemingway house)* (2025), where Bas sheds light on the caretakers of the Hemingway House in the Florida Keys whose sole responsibility is the care of the house's rare cats. At first glance, the job might seem superfluous, but the cats—descendants of Hemingway's own pets—have become a key part of the house's attraction.

Other works in the exhibition expand on Bas's ongoing interest in the occult, such as *The pet psychic's dilemma* (2025) where he imagines a pet psychic summoned to investigate a hen that has inexplicably begun laying black eggs. Through this scenario, Bas explores the seemingly frivolous profession of pet psychics, highlighting its paradoxical importance in fulfilling the human desire to understand animals. In *Holiday Spirits* (2025), Bas presents a pun-filled scene in which a boy dressed in black sits in front of a Christmas tree with a half-opened Ouija board. The board, traditionally used to communicate with the dead, offers a stark contrast to the usual symbols of birth and joy associated with Christmas. Despite being a tool that has been in production for centuries, there has been no concrete proof that Ouija boards can actually contact spirits.

With Bas's rich compositions and tongue-in-cheek narratives, *The space between needful & needless* invites viewers to re-examine the meaning that we prescribe to certain traditions or objects and the fine line between what is truly necessary and what is useless in life and art.

리만머핀은 헤르난 바스의 개인전 《필요와 불필요 사이의 공간》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열두 점의 신작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2021년 스페이스 K 서울의 첫 한국 미술관 개인전 이후, 리만머핀 서울에서 열리는 작가의 첫 개인전이다. 《필요와 불필요 사이의 공간》은 바스의 고향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바스 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 《개념주의자》에 이어 개최된다.

동시대 미술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구상 작가 중 한 명인 바스는 청소년기의 모험과 초자연적인 요소를 고전 시가, 종교적 설화, 신화 및 문학과 엮어내는 서사적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대적인 역사화의 새로운 버전을 제시한다. 각 작품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로 작용하며, 미국의 서브컬처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 특히, 작가는 이번 신작에서 플로리다를 여행하면서 얻은 영감과 자신만의 독특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작업은 그가 지난 2년간 탐구해온 《개념주의자》의 세계를 벗어나, 지금까지 발표한 그의 작업 중 가장 개인적인 작업으로 여겨지며, 시각적 서사 기법의 정수를 보여준다.

2023년 마이애미 바스 미술관에서의 개인전 《개념주의자》를 위한 작업을 마친 후, 바스는 일상에서 발견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그리고 부조리함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건, 물건, 행동 등에 매료되기 시작하였다. 작가는 특유의 날카로운 유머 감각을 바탕으로 각 작품에 풍자와 아이러니를 담아, 널리 퍼져 있지만 소위 ‘쓸모없는’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를 표현한다. 하찮은 것에 대한 집중과 시각적 과잉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19세기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와 프랑스 소설가 조리스-카를 위스망스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들의 작품은 바스의 작업에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그가 완성한 첫 번째 작품 <불필요한 순간> (2025)은 ‘쓸모 없음’에 대한 그의 탐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플로리다 북부의 모기가 가득한 울창한 늪지대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영감을 받은 바스는 모기장 모자와 같은 물건을 통해 주인의 의식적 선택, 즉

상반신을 벗고 늪을 헤매는 행위가 왜 부질없는지 탐구한다. 또한, <육발 고양이의 관리인 (헤밍웨이 하우스)> (2025)에서 여전히 플로리다의 자연이 작가에게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바스는 플로리다 남부 키스(Keys) 지역에 위치한 헤밍웨이 하우스의 관리인들을 조명한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헤밍웨이의 집에 있는 희귀한 고양이를 돌보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 일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고양이들은 헤밍웨이의 반려동물 후손으로, 이 집에서 중요한 명소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일부 작품들은 바스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오컬트에 대한 탐구를 더욱 확장한다. 예를 들어, 그는 <반려동물 전문 점쟁이의 딜레마> (2025)에서 한 마리의 암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은 알을 낳기 시작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호출된 반려동물 전문 점쟁이를 상상한다. 이 시나리오에서 겉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반려동물 전문 점쟁이’라는 직업을 탐구하며, 동물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그 직업이 갖는 역설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홀리데이 스피릿> (2025)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소년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 반쯤 열린 위지보드(Ouija Board)*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죽은 자와 소통하는 도구로 알려진 이 보드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의 탄생과 기쁨을 상징하는 요소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사실 위지보드가 실제로 영혼과 소통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19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는 이 현상 또한 작가가 던지는 ‘쓸모없는 것’에 대한 질문과 궤를 함께한다.

바스의 풍자와 유머, 다채로운 구성과 서사를 통해 《필요와 불필요 사이의 공간》은 관람자에게 특정한 전통이나 사물에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또한, 삶과 예술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쓸모없는 것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탐구하도록 이끈다.

*심령대화용 점술판으로 동양권의 ‘분신사바’와 유사한 게임

Hernan Bas (b. 1978, Miami, FL, lives and works in Miami, FL) received a degree from the New World School of the Arts, Miami, FL, in 1996. Solo exhibitions of his work have been organized by the Bass Museum of Art, Miami, FL (2023); Yuz Museum, Shanghai, China (2021); Space K, Seoul, South Korea (2021); Rubell Museum, Miami, FL (2020); Centro De Arte Contemporáneo Málaga, Málaga, Spain (2018); Colby College Art Museum, Waterville, ME (2018); SCAD Museum of Art, Savannah, GA (2017); Bass Museum of Art, Miami, FL (2013); and Kunstverein Hannover, Hannover, Germany (2012). Bas has participated in a number of group exhibitions, including *Strike Fast, Dance Lightly: Artists on Boxing*, The Norton Museum of Art, West Palm Beach, FL (2024); *Portrait of a Man*, X Museum, Beijing, China (2024); *What's Going On*, Rubell Museum, Washington, D.C. (2022); *Fire Figure Fantasy: Selections from ICA Miami's Collection*,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Miami, FL (2022); *Collection Focus: Our Beginnings Never Know Our Ends*, Museum of Contemporary Art, North Miami, FL (2021); *Eternal Forest*, Paradise Art Space, Incheon, South Korea (2020); *Where is the Madness You Promised Me: Dystopian Paintings from the Marc & Livia Straus Collection*, Hudson Valley Museum of Contemporary Art, Peekskill, NY (2019); *Generation Loss*, Julia Stoschek Collection, Düsseldorf, Germany (2017); *On the Horizon: Contemporary Cuban Art from the Jorge M. Pérez Collection*, Pérez Art Museum, Miami, FL (2017); *Tracing Shadows*, PLATEAU, Samsung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2015); *On Painting*, Centro Atlantico de Arte Moderno, Las Palmas de Gran Canaria, Spain (2013); *Contemporary Magic: A Tarot Deck Art Project*, The Andy Warhol Museum, Pittsburgh, PA (2011); *The Collectors*, curated by Elmgreen & Dragset for the Nordic and Danish Pavilions at the 53rd Venice Biennale, Venice, Italy (2009); *Triumph of Painting: Part III*, Saatchi Gallery, London, United Kingdom (2005); *Ideal Worlds – New Romanticism in Contemporary Art*, Schirn Kunsthalle, Frankfurt, Germany (2005); and the Whitney Biennial, New York, NY (2004).

Bas' work is in the permanent collections of the Art Gallery of Ontario, Toronto, Canada; Brooklyn Museum, Brooklyn, NY; Carré d'Art - Musée d'Art Contemporain, Nîmes, France; Detroit Institute of Arts, Detroit, MI;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Washington, D.C.;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Miami, FL; Hammer Museum, Los Angeles, CA;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CA; Museum of Contemporary

Art, North Miami, FL; Museum of Fine Arts, Boston, MA; Museum of Fine Arts, Houston, TX;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NY; New Britain Museum of American Art, New Britain, CT; Philadelphia Museum of Art, Philadelphia, PA; Rubell Family Collection, Miami, FL; Saatchi Collection, London, United Kingdom;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SFMOMA), San Francisco, CA; Space K, Seoul, South Korea; Speed Art Museum, Louisville, KY;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NY; Williams College Museum of Art, Williamstown, MA; Yale University Art Gallery, New Haven, CT.



Photo by Josh Aronson

1978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는 헤르난 바스는 회화, 종이 작업, 비디오, 설치 작업 등을 통해 청소년기의 모험을 고전 시, 종교 이야기, 신화, 초자연적인 요소, 문학과 엮어낸다. 바스의 초기 작품은 자연의 숭고미를 칭송한 18세기 낭만주의 시대와 더불어 허무주의, 회의주의, 감정의 과잉, 그리고 인위적 자극에 눈을 뜬 19세기 데카당스 운동에 영향을 받았으며, 대부분 청소년기 남성으로 그려지는 바스의 인물은 광활하게 펼쳐진 비밀상적인 풍경 뒤에 숨어 깊은 사색에 잠겨 있다. 바스의 작업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소는 점점 명확한 형태를 갖추어 그들이 사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다양한 시대와 주제를 오가며 호기심, 욕망, 그리고 집착에 관해 탐구하는 바스는 보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하고 미묘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관객을 초대한다.

바스의 작품 전반에 등장하는 젊은 남성 인물은 구체적인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각각의 회화 작품을 포함한 그의 최근 작업은 성 소수자 운동, 욕망, 정치, 뉴스, 음모론, 그리고 오컬트처럼 구체적인 주제 또한 담고 있다. 미국의 하위문화, 그리고 고전 회화의 동시대 해석에 관해 독특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이러한 작품은 관객으로 하여금 서로 동떨어져 보이는 과거와 현재의 비연속적 순간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비판과 성찰의 장을 마련한다. 2019년 11월 리만머핀이 개최한 전시 《TIME LIFE》에서 바스는 그가 영감을 받은 TIME-LIFE의 도서 연작 《Mysteries of the Unknown》를 차용한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연재한 각각의 책은 유령, UFO, 초능력, 꿈과 같은 다양한 초자연적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상과 현실, 미와 추, 그리고 비범함과 평범함 사이의 경계를 탐색하면서 바스는 과거의 사이비 종교 현상을 통해 현재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통찰을 얻고자 한다.

바스는 1996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뉴 월드 예술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바스의 개인전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바스 미술관(2023), 리만머핀 뉴욕(2023), 영국 런던 빅토리아 미로(2022), 중국 상하이 유즈 박물관(2021), 대한민국 서울 K 스페이스(2021),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루벨 박물관(2020), 스페인 말라가 현대 미술 센터(2018), 메인주 워터빌 콜비 대학교 미술관(2018), 조지아주 서배너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 미술관(2017), 그리고 독일 하노버 미술 협회(2012)에서 개최되었다. 바스가 참여한 그룹전은 대표적으로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노턴 미술관의 《Strike Fast, Dance Lightly: Artists on Boxing》(2024), 중국 베이징 X미술관의 《Portrait of a Man》(2024), 워싱턴 D.C. 루벨 미술관의 《What's Going On》(2022),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현대미술관의 《Fire Figure Fantasy: Selections from ICA Miami's Collection》(2022), 플로리다주 노스마이애미 현대미술관의 《Collection Focus: Our Beginnings Never Know Our Ends》(2021),

대한민국 인천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의 《Eternal Forest》(2020), 뉴욕주 픽스킬 허드슨 밸리 현대미술관의 《Where is the Madness You Promised Me: Dystopian Paintings from the Marc & Livia Straus Collection》(2019), 독일 뒤셀도르프 울리아 슈토셰크 컬렉션의 《Generation Loss》(2017),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페레스 미술관의 《On the Horizon: Contemporary Cuban Art from the Jorge M. Perez Collection》(2017), 대한민국 서울 삼성 리움 미술관의 《Tracing Shadows, PLATEAU》(2015), 스페인 라스팔마스데 그란 카나리아 아틀랜틱 현대미술센터의 《On Painting》(2013),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앤디 워홀 박물관의 《Contemporary Magic: A Tarot Deck Art Project》(2011), 엘름그린 앤 드라그셋이 덴마크관과 노르딕관에서 주관한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의 《The Collectors》(2009),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의 《Triumph of Painting: Part III》(2005), 독일 프랑크푸르트 쉬른 미술관의 《Ideal Worlds - New Romanticism in Contemporary Art》(2005), 그리고 뉴욕주 뉴욕 휘트니 비엔날레(2004)가 있다.

바스의 작품은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 미술관, 뉴욕주 브루클린 미술관, 프랑스 님 까레 다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미술관, 워싱턴 D.C. 허쉬혼 미술관 및 조각 정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현대미술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플로리다주 노스마이애미 현대미술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미술관, 텍사스주 휴스턴 미술관, 뉴욕주 뉴욕 현대미술관, 코네티컷주 뉴 브리튼 미국 미술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미술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루벨 가족 컬렉션, 영국 런던 사치 컬렉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대한민국 서울 K 스페이스, 켄터키주 루이빌 스피드 미술관, 뉴욕주 뉴욕 휘트니 미국 미술관, 매사추세츠주 윌리엄스 대학교 미술관,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예일 대학교 미술관 영구 컬렉션에도 소장되어 있다.

**Lehmann Maupin**

Rachel Lehmann and David Maupin co-founded Lehmann Maupin in 1996 in New York. Since inception, Lehmann Maupin has served as a leading contemporary art gallery with locations in the U.S., Europe, and Asia. For over 25 years, Lehmann Maupin has been instrumental in introducing international artists in new geographies and building long-lasting curatorial relationships. Known for championing diverse voices, the gallery's program proudly features artists whose work challenges notions of identity and shapes international culture. Today, the gallery has permanent locations in New York, Seoul, and London, as well as team members based in Hong Kong, Shanghai, Singapore, and Palm Beach. In recent years, with growing opportunities in new markets, the gallery has opened seasonal spaces in Aspen, Palm Beach, Taipei, Beijing, and Milan.

SEOUL

213, Itaewon-ro
Yongsan-gu, Seoul 04349
+82 2 725 0094

CONTACT

Julie Niemi, julie@lehmannmaupin.com
Associate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McKenna Quatro Johnson, mckenna@lehmannmaupin.com
Communications Manager

General inquiries
seoul@lehmannmaupin.com

리만머핀 소개

1996년 라셸 리만과 데이비드 머핀이 뉴욕에 설립한 리만머핀은 개관 이래 선도적인 현대미술 갤러리로서 꾸준히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유럽, 아시아로 지리적 확장을 도모해 왔다. 지난 30여 년 동안 리만머핀은 국제적인 작가들을 새로운 지역에 소개하고 지속적인 큐레이토리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다양한 예술적 목소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갤러리의 프로그램은 정체성을 둘러싼 여러 담론에 도전하고 새로운 세계 문화를 창출하는 예술가들을 당당히 선보인다. 현재 갤러리는 뉴욕, 서울, 런던에 상설 전시 공간을 두고 있으며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팜비치에도 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리만머핀은 새로운 시장의 성장 기회에 발맞춰 아스펜과 팜비치, 타이베이, 베이징 및 밀라노에 시즌별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